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SIN: 신조선가 지수 127p, 중고선가 지수 88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7p(-, WoW), 중고선가 지수는 88p(+1p, WoW)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현대중공업이 17.4만 DWT급 LNG선 4척을 수주했고 2023년까지 인도예정이라고 보도됨. 현대미포조선이 375pax 배터리추진선 1척을 수주했고 2022년 10월 인도예정이라고 보도됨. 현재까지 전세계 발주량은 312척으로 전년동기 대비 -53% 감소했다고 보도됨. (Clarksons)

### 한국조선해양, 올해 첫 LNG선 수주 낭보

한국조선해양은 31일 버뮤다 및 유럽 소재 선사와 LNG선 4척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고 보도됨. 계약 규모는 약 8,912억원 수준으로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2척씩 건조돼 오는 2023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EBN)

### GTT sees 77 LNG carriers required for projects under construction

프랑스의 LNG화물창 Membrane 특허권자 GTT(Gaztransport & Technigaz)는 건조(U/C)중인 프로젝트의 LNG화물 운반용으로 LNG선 77척이 신규 발주되어야 한다고 발표함. 상반기 실적발표에서 회사는 현재 건조중이거나 승인된 프로젝트에 필요한 LNG선 수는 171척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됨. 회사는 2020년 LNG시장 성장 예상치를 +3%라고 밝힘. (TradeWinds)

### Offshore driller Noble files for Chapter 11

Offshore업체 Noble이 저유가로 인한 업황 악화로 인해 파산보호신청(Chapter11)을 했다고 보도됨. 34억달러 규모의 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자들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보도됨. 주요 채권자들은 2억달러 규모의 자본을 새로운 유치권(lien) 형태로 투자하는데 동의했다고 보도됨. (Upstream)

### ExxonMobil eyes workforce cuts going into 2021

미국의 슈퍼 메이저 ExxonMobil이 2분기에 10억달러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비용감축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됨. 회사는 이미 기존의 자본지출비용 30% 감축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2021년에도 대규모 비용감축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 (Upstream)

### Force majeure: Second Covid-19 wave in Dalian adds to China FPSO delivery concerns

중국을 강타한 COVID-19 2차 확산으로 인해 Cosco Shipbuilding Heavy Industry가 건조하고 있는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의 인도가 연기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Dalian 야드는 7월 23일이 이후로 폐쇄되었으며, Modec에게 Force Majeure(불가항력)를 보냈다고 알려짐. (Upstream)